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학생들 스스로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자율 동아리 대표님들이 오셨는데, 이 중 세 분을 모시고 해결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 1: 자율 동아리 활동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개설 단계에서 간단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지한 고민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동아리부터 만들어 실질적인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 2: 활동 과정에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없는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 절차가 없으니 동아리 활동의 긴장감이 사라져 계획대로 활동하지 않아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활동은 거의 없는 동아리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대표 1: 맞아요. 올해 새로 생긴 자율 동아리가 40여 개나 되지만, 그중에는 활동이 거의 없어 이름만 남아 있는 유명 동아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표 3: 한 학생이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자율 동아리 활동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중에는 소홀히 활동하는 동아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자율 동아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 1: 자율 동아리 개설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회 임원 및 담당 선생님이 활동 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동아리 개설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무분별하게 동아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2: 좋은 의견입니다. 덧붙여 자율 동아리의 활동 일지를 토대로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자체 평가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3: 저는 학생당 참여 가능한 동아리를 2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4개 이상의 자율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 자율 동아리 참가 인원의 30%이고, 이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중 2개 정도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계획서에 대한 심사의 강화, 자율 동아리 활동에 관한 주기적 평가 실시, 가입 동아리 수의 제한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실현 가능성과 자율 동아리의 취지를 바탕으로 제안해 주신 해결 방안을 평가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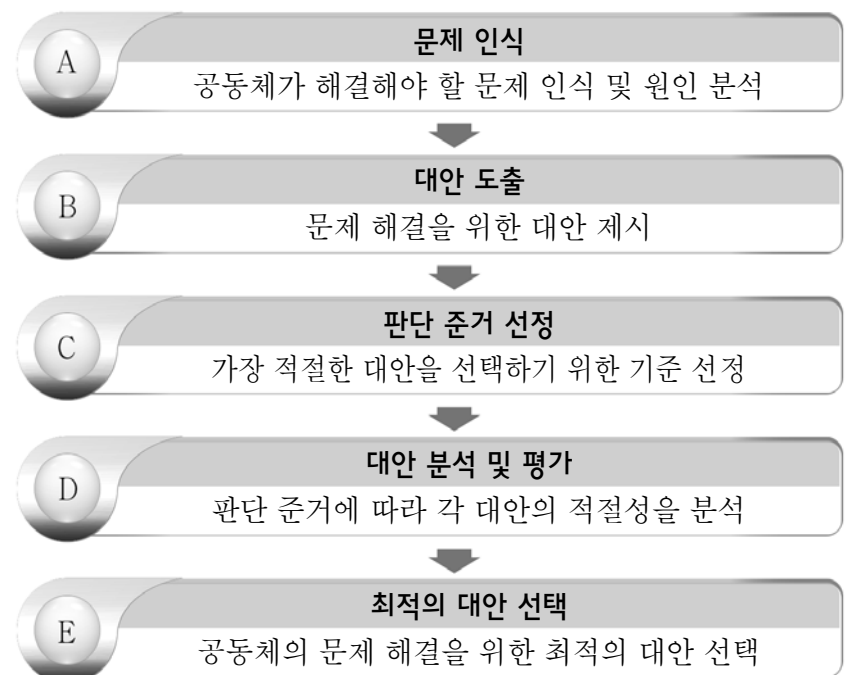
대표 2: 자율 동아리 개설 단계에서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해서 개설되지 못하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학생들이 재량껏 동아리를 개설하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자율 동아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은 방과 후 시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실현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자율 동아리의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표 1: 저 역시 자체 평가 시간을 마련하자는 방안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 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은 동아리 활동을 강조하는 현재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자율적인 자체 평가의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논의된 대안 중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1. 토의 절차 및 방식을 바탕으로, 위 토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대표1은 문제의 원인을 자율 동아리의 개설 측면에서 분석했다.
- ② B: 대표2는 계획대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아리 내 자체 점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③ C: 논의 대상의 근본 목적과 실현 가능성을 최적의 대안 선택을 위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 ④ D: 대표3은 대표2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자율 동아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⑤ E: 자율적인 자체 평가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선택했다.

2. 위 토의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 ② 토의 참여자들에게 논의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④ 주제와 관련하여 추후 논의할 내용을 언급한다.
- ⑤ 이어질 화제를 안내하여 토의 방향을 제시한다.

3. 위 토의를 참관한 학생이 <보기>를 접한 후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얼마 전 ○○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의 수를 제한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자율 동아리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했고 자신이 선택한 동아리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① 자율 동아리 부실 운영의 원인에 대한 대표3의 해결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겠군.
- ② 동아리 개설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표1의 의견을 보충할 수 있겠군.
- ③ 동아리 활동에 주기적인 자체 평가가 실현 가능하다는 대표3의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겠군.
- ④ 동아리 개설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학생회 임원이 참여하자는 대표1의 발언을 구체화할 수 있겠군.
- ⑤ 자율 동아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평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표2의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겠군.

[4 ~ 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11월 달력엔 어떤 날이 표시되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 가지 기념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달력엔 다른 날이 하나 더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11월 3일입니다. 혹시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힘을 주어 또박또박한 어조로) 이날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학생의 날’이라고도 했었죠.

(영상 자료를 보여 주며)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같이 탔던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 일본 학생에게 항의하게 되고, 이는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의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본 경찰들은 일본인 학생의 편을 들며 조선인 학생들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편파적인 사건 처리를 전해 듣고 분노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11월 3일에 광주에서 대규모 항일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날의 학생 운동은 점차 동맹 휴학이나 거리 시위 같은 조직적 형태로 변하여 전국, 해외로까지 퍼져 나가게 되죠.

1953년에 이날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학생의 날’을 제정했고, 2006년에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한 학생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진 속 학생처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서투르더라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거창한가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내미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일본인의 희롱에 항의했던 학생의 용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0여 년 전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고민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앞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 ②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를 강조해야겠어.
- ③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④ 뒷부분에서 실천을 강조하여 청중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겠어.
- ⑤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하도록 해야겠어.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청중들이 떠올린 생각이다. 청중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청중 1: 어, 저 영상 속 장면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 그 때에는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대규모 시위의 불씨가 불의에 맞선 한 학생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니 놀라울 뿐이야. 학생이 선봉에 섰던 독립운동이란 점에서 그 의미도 남다른 것 같아.

청중 2: 왜 1953년이 돼서야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일까? 그리고 왜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지? 명칭은 왜 또 바뀐 거야?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 봐야지.

청중 3: 90여 년 전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도 수십 년 후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군. 나도 그동안 외면해 왔던 세상과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겠어.

- ① 청중1은 발표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며 들었다.
- ② 청중1은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들었다.
- ③ 청중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④ 청중3은 발표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들었다.
- ⑤ 청중3은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들었다.

[6~8] 다음은 건의문을 쓰기 위한 작문 일지와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일지

- 예상 독자: ◇◇지방자치단체장 ㉠
- 글을 쓰게 된 배경: 취지가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부족 문제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 글의 주제: 공공복지 사업의 기금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함. ㉢
- 유의 사항
 1. 건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드러냄. ... ㉣
 2. 예상 독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함. ㉤

(나) 학생의 초고

존경하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살고 있는 행복고등학교 2학년 3반 이시현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급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가 지역 독거노인들께 전달하는 공공복지 차원의 행사를 추진하려다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공공복지 사업이 저희처럼 사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내놓는 클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기사를 접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펀딩은 대중이 아이디어에 투자하거나 기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기부형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공공복지 사업을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한 개인이 적은 돈으로도 공공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아이디어는 좋으나 자금이 없어 시도해 보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소규모 공공복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어 일반인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복지 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되어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고, 이미 제시된 아이디어가 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클라우드 펀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기구가 마련된다면 공공복지 사업이 확대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인정 넘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한다.
- ② ㉡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언급한다.
- ③ ㉢을 강조하기 위해 건의하는 내용의 이유를 나열한다.
- ④ ㉣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제시한다.
- ⑤ ㉤을 반영하여 앞부분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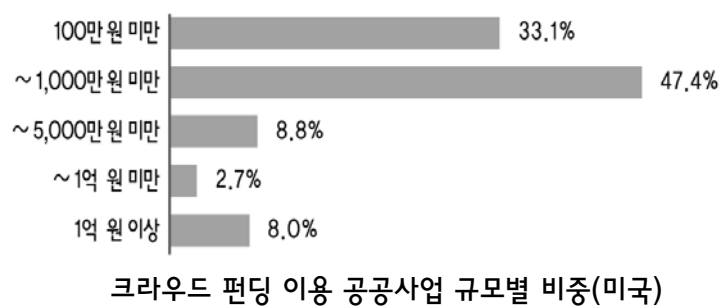
< 보 기 >

(ㄱ) 신문 기사

지역사회에 소규모 체육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데 기부형 클라우드 펀딩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벽화 그리기와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이나 물품 후원, 교육 지원 등 이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ㄴ) 보고서 자료

미국의 경우,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공공사업의 대다수가 1,000만 원 미만의 지역사회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ㄷ) 인터뷰

질문자: 최근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없을까요?

전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사칭한 금융 사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자들도 펀딩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 또 다른 해결 과제는 없을까요?

전문가: 네,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논의의 장 역시 필요합니다.

- ① (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펀딩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 사업의 영역이 다양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시도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소규모 공공복지 사업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신뢰감을 주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화한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한 개인이 적은 돈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ㄱ)과 (ㄷ)을 활용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다.

8. <보기>는 ㉠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을 <보기>에 따라 바꾸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해서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겠어.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펀딩의 의의를 밝히는 것이 좋겠어.

- ① 클라우드 펀딩은 작은 기금을 모아 큰 사업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② 우리 모두가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다면 공공복지 사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 ③ 배가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꾸듯이 좋은 사업은 아이디어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현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 ⑤ 여러 물방울이 한 데 모여 물길을 만들 수 있듯이 작은 정성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여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우산 은행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제도를 널리 홍보하는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갑자기 비가 내려 하굣길에 학교 현관 앞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지요? 우리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우산 은행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산 은행 제도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학생들에게 ㉠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학생회실로 와서 학생증을 맡기면 우산을 무료로 빌려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우선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가다가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교복이나 가방이 비에 젖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산을 챙겨가지 않은 자녀들이 혹시 비를 맞으며 ㉢ 집으로 귀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우산들은 학생회에서 학교 텃밭 가꾸기로 ㉣ 채집한 농작물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판매해 생긴 수익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학생증으로 우산을 빌리셔야 합니다. 둘째, 다음날 꼭 학생회실로 우산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친구의 학생증으로 우산을 빌리거나 다음날 반납하지 않으면 한 달간 대

여가 제한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회에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 학생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주에 있었던 급식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산 은행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② 학생들이 겪은 일을 환기시키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제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 ④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 ⑤ 당부하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여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우산을’을 넣는다.
- ②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또한’으로 바꾼다.
- ③ ㉢: 의미가 중복되므로 ‘집으로’를 삭제한다.
- ④ ㉣: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거한’으로 바꾼다.
- ⑤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1>은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 제9항 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ㅊ,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ㅓ, ㅕ, ㅖ, ㅗ)’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ㅓ, ㅕ, ㅖ, ㅗ)’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보기2>

- ㉠ 들녘이 ㉡ 들녘도 ㉢ 들녘만

- ① ㉠에서 ‘들녘’의 ‘ㄱ’은 제13항이 적용되어 [ㄱ]으로 발음되겠군.
 ② ㉡에서 ‘들녘’의 ‘ㄱ’은 제9항이 적용되어 [ㄱ]으로 발음되겠군.
 ③ ㉡에서 ‘도’의 ‘ㄷ’은 제23항이 적용되어 [ㄷ]으로 발음되겠군.
 ④ ㉢에서 ‘들녘’의 ‘ㄱ’은 제18항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되겠군.
 ⑤ ㉠ ~ ㉢에서 ‘들녘’의 ‘ㄴ’은 제20항이 적용되어 [ㄹ]로 발음되겠군.

12. <보기>의 ㄱ~ㄴ을 활용하여 만든 겹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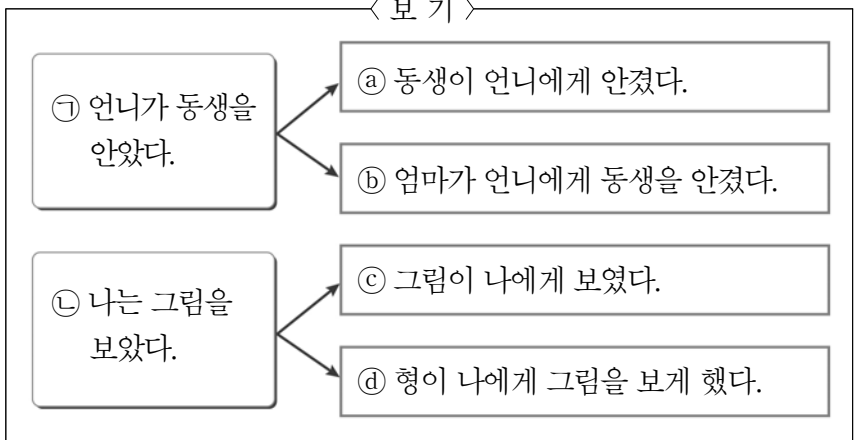
< 보 기 >

- ㄱ. 바람이 분다.
 ㄴ. 바람이 차갑다.
 ㄷ. 단풍잎이 빨갳다.
 ㄹ. 단풍잎이 흔들린다.

- ①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흔들린다.’는 ㄱ과 ㄹ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ㄴ이 ㄱ에 안기면서 ㄴ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③ ‘바람이 차갑고 단풍잎이 빨갳다.’는 ㄴ과 ㄷ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는 ㄹ이 관형절로 바뀐 ㄱ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⑤ ‘흔들리는 단풍잎이 빨갳다.’는 ㄹ이 관형절의 형태로 ㄷ에 안겨 있는 문장이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과 ㉢을 보니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는군.
 ② ㉡과 ㉣을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되는군.
 ③ ㉡과 ㉤을 보니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는군.
 ④ ㉢과 ㉣을 보니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을 수 있군.
 ⑤ ㉣과 ㉥을 보니 사동사나 ‘-게 하다’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군.

[14 ~ 15] 다음은 형태소 및 단어에 관한 교과서 내용과 학습활동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과서 내용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명사처럼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조사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사용될 수 있는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조사, 어미, 접사처럼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A] 형태소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면, ‘단어’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그런데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존명사도 자립성은 없지만 명사와 마찬가지로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꾸미는 말과 늘 띄어 쓰며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나) 학습활동

<자료>는 ‘용비어천가’의 일부입니다. 아래의 ‘옛말사전’을 활용하여 <자료>의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자 료 >

-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뫼썩
-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 식미 기픈 므른 그믄썩
- (현대어 풀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끊어지므로

옛말사전		
나무	명사	‘나무’의 옛말. 휴지(休止) 앞에서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공동격 조사 ‘와’ 앞에서 나타나며, 그밖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남’으로 나타난다.
은	조사	(끝음절의 모음이 ‘·, ㅏ, ㅑ’이고 받침 있는 체언류 뒤에 붙어) 은.
브름	명사	‘바람’의 옛말.
애	조사	(일부 체언류 뒤에 붙어) 애.
뫼다	동사	‘움직이다’의 옛말.
-르썩	어미	(동사,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기에, -므로.
믈	명사	‘물’의 옛말.
그믄	명사	‘가뭄(=가뭄)’의 옛말.
꺄다	동사	‘끊어지다’의 옛말.

1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그는 너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
- 나는 꽃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
-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
- 교실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다.
㉣

- ① ㉠과 ㉢은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② ㉠과 ㉣은 자립하여 쓰일 수 없으므로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과 ㉣은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사용된다.
- ④ ㉡과 ㉣은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된다.
- ⑤ ㉢과 ㉣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15. (가)를 바탕으로 (나)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남근’은 실질 형태소 ‘나무’가 형식 형태소 ‘은’ 앞에서 ‘남’으로 나타난 것이겠군.
- ② ‘브르매’와 ‘그믄’은 각각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겠군.
- ③ ‘뫼썩’은 의존 형태소 ‘뫼-’와 의존 형태소 ‘-르썩’로 이루어진 말이겠군.
- ④ ‘므른’의 ‘믈’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이면서 동시에 최소의 자립 형식이기도 하겠군.
- ⑤ ‘꺄다’는 형식 형태소 ‘꺄-’에 형식 형태소 ‘-르썩’이 결합한 단어이겠군.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을 듣는다고 가정해 보자. 제2음이 울릴 때 직전에 제1음이 울렸던 순간은 과거일까? 현재일까? 이에 대해 과학적 시간관에서는 현재는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점(點)과 같은 순간이므로 과거라고 답할 것이다. 반면 체험적 시간관에서는 ‘현재의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라고 답한다.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후설(Husserl)에 따르면 현재가 ‘과지-원인상-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되는데, 이를 ‘현재화’ 작용이라고 한다. 원인상은 음을 듣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을 말한다. 그런데 제2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들은 제1음은 변양된 형태로 여전히 의식 속에 남아 있다. 이처럼 원인상을 의식 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과지이다. 또한 제2음을 들을 때 아직 듣지 않은 음을 예측하듯이 원인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즉각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예지이다. 예지는 충족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의 지평이 형성된다. 따라서 제2음을 들을 때 제1음이 들렸던 순간도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평 형성에는 ‘현전화’ 작용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현전화는 자아의 능동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현전화에는 우선 회상이 있다. 과지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사라진 것을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 회상이다. 또한 미래의 일을 현재에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기대라고 한다.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현재화와 융합되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현전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어 생생함이 사라진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가 유기체처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관심이나 주의력에 따라 과지와 예지, 회상과 기대의 정도가 달라져 현재의 지평도 변한다. 예컨대 프로듀서가 휴양지에서 휴식을 위해 음악을 들을 때보다 음반 출시를 위해 음악을 들을 때 현재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화는 현재의 지평에 대한 통일적 인상을 변화시킨다. 제1, 2음을 들으며 제3음의 높낮이를 예측할 때, 그 세 음들에 대한 나름의 통일적 인상을 갖는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은 제3음이 들려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제1, 2, 3음에 대한 이전의 인상도 달라져, 그 세 음들에 대한 통일적 인상도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체험적 시간관을 통해 인간은 항상 경험을 통일성 있는 구조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된 사물을 보거나 ‘뻑’하는 소리를 들을 때조차 그 순간만을 지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지각하거나 회상과 기대를 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련한 스토리를 만들려 하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후설은 현재가 지평을 갖는다고 보았다.
- ② 현재화는 현전화를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다.
- ③ 과학적 시간관에서 현재는 점과 같은 순간이다.
- ④ 현전화는 현재의 지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 ⑤ 인간은 고정된 대상을 보면서도 스토리를 만들려 한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의식이다.
- ② 현재의 지평은 개인의 주의력과 무관하게 신축성을 가진다.
- ③ 파지는 잊힌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한다.
- ④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아는 통일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다.
- ⑤ 기대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예지와 다르다.

18.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가) ~ (라)를 듣는 청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모의 ‘합축-실현’ 이론에 따르면 청자들은 음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음 음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한다. 한 예로 세 음을 연속해서 들을 때, 앞의 음정이 ‘미’와 ‘솔’, ‘파’와 ‘라’ 사이처럼 완전 4도 이하의 좁은 음정일 경우, 앞 음정이 상행이면 뒤 음정도 상행, 앞 음정이 하행이면 뒤 음정도 하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파’와 높은 ‘레’ 사이처럼 앞의 음정이 완전 5도 이상의 넓은 음정이라면 앞 음정과 반대의 방향으로 뒤 음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 음정: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

(가)

미 솔 시

(나)

파 레 미

(다)

파 라 솔

(라)

파 레 도

- ① (가)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도 제1음과 제3음을 함께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가)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 ③ (나)의 제2음을 듣는 순간 일어난 예지가 제3음을 들을 때 충족되지 못해 제1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 ④ (다)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 ⑤ (라)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 미리 당겨진 음에 대한 인상이 제3음을 들을 때 느낀 인상과 다르다고 느낄 것이다.

19. 윗글의 ‘후설’이 <보기>의 ‘브렌타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브렌타노는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변양된 상태로 떠오르는데, 이는 지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직전에 본 장면을 여전히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상상의 생생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 ①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지각입니다.
- ② 직전에 본 장면을 떠올릴 때는 변양이 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 ③ 지각한 것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 ④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 ⑤ 시간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 인상은 생생할 수 없습니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시에서 업무, 상업, 주거, 공업 등 각종 기능 지역이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도시내부구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내부구조는 어떻게 형성될까? 20세기 전반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심원모델과 선형(扇形)모델이 제시되었다.

먼저 동심원모델은 1920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내부구조를 모형화한 것으로,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커진다고 보았다. 즉 도심의 인접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점차 이곳이 과밀화되고 여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심 인접 지역 바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부 거주자들이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심원의 형태를 띤 도시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동심원모델은 시카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기 때문에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인 지형, 철도, 공업 지대의 위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른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대(地代)*와 교통로에 따라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처럼 형성된다고 본 선형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이 모델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살 모양의 간선 교통로가 생기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고급 주거 지구가, 여기에 인접하여 중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철도나 수로(水路)와 같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하는 곳에는 경공업 지구가, 그 주변은 지대가 싼 저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내부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전의 두 모델로는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도시가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다핵심모델이다. 도시가 커지면서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 기능 지구가 분화하게 된다. 다핵심모델에서는 이러한 기능 지구가 다음의 4가지 양상으로 분화한다고 보았다.

첫째, 활동마다 유리한 입지 지점에 따라 분화한다. 예를 들어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도매업 지구가 입지하고, 수륙 교통 관계가 좋은 곳에 공업 지구가 입지한다. 둘째, 어떤 활동은 유리한 입지 지점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지점에 입지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이나 창고업은 도심 주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심 주변은 지대가 비싸서 입지하기가 어렵다. 셋째, 동종의 활동은 집적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여 분화한다. 그래서 금융기관, 도매업, 소매업 등은 각기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하여 상권을 유지하게 된다. 넷째, 상이한 활동은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위치한다. 그래서 주택 지구는 공업 지구와, 소매업 지구는 공업 지구와 서로 분리된다.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도시내부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을 적용하여 도시내부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도시의 각종 기능 지역들이 배치된 질서와 논리를 규명하여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대(地代): 지료(地料).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외의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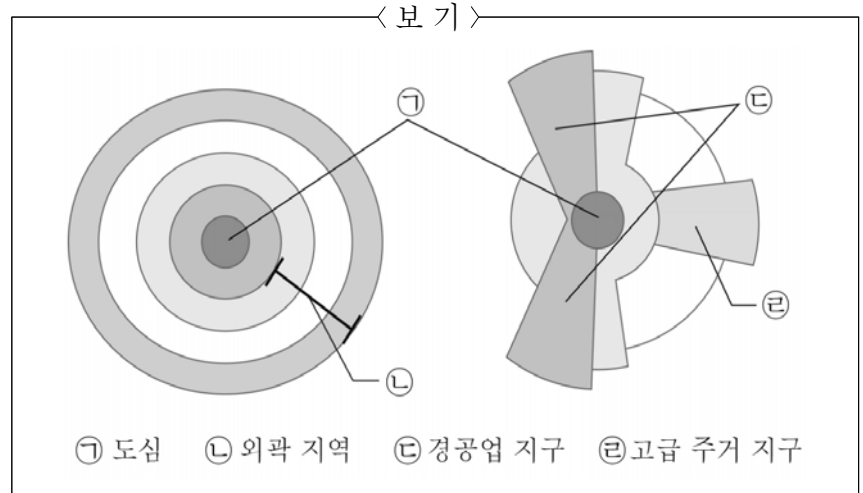
20.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개념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가설들에 대한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⑤ 한 이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도시의 기능 지역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된다.
- ② 다핵심모델은 도시 내부가 복잡해지면서 등장하였다.
- ③ 동심원모델은 여러 도시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모델이다.
- ④ 도시내부구조의 파악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⑤ 선형모델은 주거 지구의 형성이 교통로의 발달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22. 밑글을 읽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도시내부구조는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겠군.
- ② 인구 유입과 환경 요인 등으로 ㉡이 형성되었겠군.
- ③ 대규모 교통 시설이 입지하는 곳에 ㉢이 형성되었겠군.
- ④ 간선 교통로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이 형성되었겠군.
- ⑤ 지대가 싼 저급 주거 지구는 ㉣의 인접 지역에 형성되었겠군.

23. [A]를 통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시의 공업 지구인 ㉢은 수륙 교통 관계가 좋고, 창고업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있다.
- ○○시의 ㉣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 ○○시의 ㉣은 도심 주변의 주택 지구이다.

- ① ㉢은 ㉣과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형성된 것이겠군.
- ② ㉣에 수륙 교통 관계가 좋기 때문에 공업 지구가 형성될 수 있었겠군.
- ③ ㉢은 창고업이 입지한 것으로 보아 도심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지불하는 곳이겠군.
- ④ ㉣은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집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겠군.
- ⑤ ㉣은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매업이 입지하는 것이 쉽겠군.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는 에너지가 있어야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에너지는 사람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성장하거나 운동하는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에너지를 얻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이루어진다. 외호흡은 폐의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말한다.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에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의해 모세혈관을 통해 조직 세포에 들어온 산소가 영양소와 결합하여 영양소가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내호흡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영양소가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과정은 세 가지의 주요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먼저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모세혈관을 타고 조직 세포로 운반된다. 이때 포도당 한 분자는 세포의 세포질에서 2개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면서, 2개의 ATP*와 2개의 NADH₂라는 물질도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이때 생성된 피루브산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있는 TCA회로*에 투입된다. 피루브산 한 분자가 TCA회로에 투입되면 이산화탄소가 세 분자가 생성되고, 4개의 NADH₂와 1개의 FADH₂, 1개의 ATP가 함께 만들어진다.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피루브산이 두 분자 만들어지므로, TCA회로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6개의 이산화탄소와 8개의 NADH₂, 2개의 FADH₂, 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A]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ATP이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만들어진 ATP만을 사용하면 에너지의 양이 너무 적다.

호흡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전달계*에서 이를 보완해 준다. 이전 단계들에서 만들어진 NADH₂와 FADH₂는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이용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에서 ATP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NADH₂와 FADH₂는 전자전달계로 건너와 각각 3개, 2개씩의 ATP를 만든다. 이때 ㉠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는 산소가 필요하다. 포도당 한 분자에 대해 ATP는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2개, TCA회로를 통해 2개, 전자전달계를 통해 34개가 만들어져 총 38개를 얻을 수 있다.

발효나 부패와 같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기호흡은 포도당 한 분자를 이용해 2개의 ATP를 만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 방법임을 알 수 있다.

*ATP: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린 유기 화합물로 모든 생물의 세포 내 존재하여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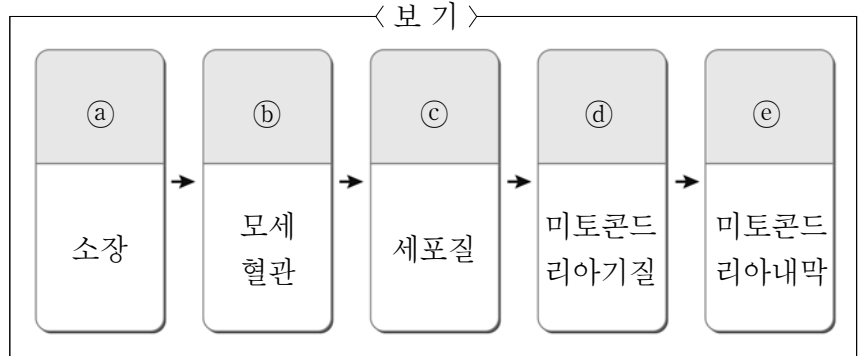
*TCA회로: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며 피루브산의 산화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하는 8단계의 반응을 포함한 화학 회로.

*전자전달계: 산화 환원 반응 동안 전자를 운반하여 ATP를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련의 전자 운반체.

24.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만들어진 NADH₂는 모두 8개이다.
- ② 외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다.
- ③ 내호흡의 과정에서 기체 교환과 영양소의 산화가 일어난다.
- ④ 이산화탄소 분자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6개가 만들어진다.
- ⑤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25. <보기>는 [A]를 도식화한 것이다. 밑글을 통해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포도당의 흡수가 이루어지겠군.
- ② ㉡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조직세포로 운반되겠군.
- ③ ㉢에서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겠군.
- ④ ㉣에서 피루브산 한 분자는 FADH₂는 2개, ATP는 2개를 생성하겠군.
- ⑤ ㉤에서는 NADH₂와 FADH₂로부터 ATP가 추가적으로 생산되겠군.

26. 밑글을 읽고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TP를 생성하기 위해 효모는 주위 환경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발효를 한다. 만약 무산소 환경에서의 효모가 유산소 환경일 때와 동일한 양의 ATP를 같은 속도로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포도당의 소모량은 ㉡ (단, 포도당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약 2배 늘어날 것이다.
- ② 약 19배 늘어날 것이다.
- ③ 약 2배 줄어든 것이다.
- ④ 약 19배 줄어든 것이다.
- ⑤ 약 38배 늘어날 것이다.

27. <보기>를 근거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원자 또는 분자 사이에서 다른 쪽의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을 전자 수용체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한다. 이때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 하는데,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호흡의 과정에서 포도당은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고 최종적으로 전자는 위치 에너지를 잃고 그 결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 ① 전자가 위치 에너지를 얻도록 하기 위해
- ②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얻어 환원되기 위해
- ③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얻어 산화되기 위해
- ④ 산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방출하여 에너지를 얻기 위해
- ⑤ 수소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여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에는 조상과 성현의 높은 덕행을 기리고 권계(勸誡)하기 위해 제사를 중요시했다. 조선 시대 자화상을 비롯한 대다수의 초상화는 이러한 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조선 시대 대부분의 초상화는 별도의 배경이나 현실 공간에 대한 묘사 없이 초상화의 주인공만이 다소곳이 화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 인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경건한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얼굴이 정면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진 칠분면이나 팔분면을 취하게 하고 시선은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화폭 속 인물에 대해 공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또한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노출시키지 않거나 예의바른 공수 자세를 취하게 한 것도 숭앙심(崇仰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조선 시대 초상화가는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자세나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다. 예를 들면 임금의 초상인 어진은 용포를 입은 군주의 외모를 통해 위풍당당한 모습을 표현했고, 공신상의 경우에도 관복을 입은 외모를 통해 위엄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대부상의 경우 야복*으로 욕심 없는 은일의 태도를 표현하거나 관복으로 유학자의 풍채를 보여 주기도 했다.

조선 시대 초상화는 얼굴이나 의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인물의 실체감을 더 강조하는 화법으로 변모해 갔다. 특히 안면이나 옷 주름의 음영 묘사는 평면적인 묘사 기법에서 후기로 갈수록 안면이나 옷 주름 선 주변에 형성된 음영을 나타내어, 입체적인 느낌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도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는 노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처럼 조선 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표현했다. 즉 조선 시대 초상화가는 초상화 속 인물과 실제 인물과의 내외적인 닮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초상화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커다란 크기로 사당이나 서원에 걸렸고, 우리 조상들은 초상화 속 인물을 단순한 그림 속 인물이 아닌 조상과 성현 그 자체로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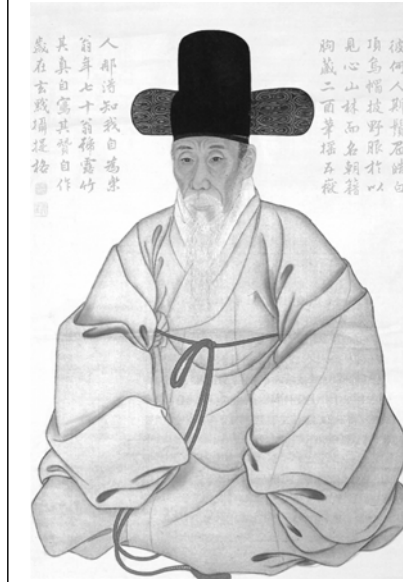
* 야복: 야인이 입는 옷. 여기서는 관복이 아닌 평상복을 말함.

28. ‘조선 시대 초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시대 초상화는 조상과 성현에 대한 제사의 영향을 받았다.
- ②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 인물의 시선은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 ③ 조선 시대 초상화는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절제된 군자의 자세를 드러냈다.
- ④ 조선 시대 초상화의 커다란 크기는 초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짐과 관련 있다.
- ⑤ 조선 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성정을 드러내기 위해 평면적인 묘사 기법을 유지했다.

29. 윗글을 읽고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강세황 70세 자화상>은 조선 후기작으로, 팔분면에 머리에 관모를 쓰고 의복은 야복을 입은 전신부좌상이다.

- ① 인물의 손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얼굴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겠군.
- ② 야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인물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겠군.
- ③ 옷 주름 선 주변에 음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입체감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겠군.
- ④ 안면을 우측으로 돌려 팔분면을 취한 것으로 보아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한 것이겠군.
- ⑤ 특별한 현실 공간을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는 사람이 인물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겠군.

30. 윗글의 ㉠과 <보기>의 ㉡의 ‘초상화 그리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는 인물의 내적 세계인 정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물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아닌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고 보색의 병치를 활용하여 드러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까지 초상화에 표출되기도 했다.

- ① ㉠과 달리 ㉡은 인물이 지닌 미덕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에 주목하였다.
- ② ㉠과 달리 ㉡은 인물의 모습을 사진처럼 똑같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 ③ ㉠과 달리 ㉡은 인물의 내적 세계의 표현을 중요시하면서도 외적 유사성을 추구하였다.
- ④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가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 ⑤ ㉠과 ㉡은 모두 인물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였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충을 안고 빨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

* 자무스: 중국 쑹화강 상류, 러시아와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도시.
* 빨가: 폴카(polka). 보헤미안의 경쾌한 무곡(舞曲).

(나)

지금쯤 물거리 한 짐 해놓고
넷가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볼 시간……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
별판에 버려진 사람들에게겐 옛날밖에 없다
지금쯤 아이들 신작로에 몰려
갈궂질*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로 외쳐대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몸짓으로 발버둥치다
지친 다리 꺾는 오르막에서 바라보면
너덜대는 지붕 위에 ㉡ 갈구렁달*이 걸렸구나
시들고 찌든 우리들의 얼굴이 걸렸구나

— 신경림, 「갈구렁달」 —

* 갈궂질: ‘가택질’의 북한어. 아이들이 서로 잡으려고 쫓고 이리저리
피해 달아나며 뛰노는 장난.
* 갈구렁달: ‘갈고리달’의 북한어. 초승달이나 그믐달 따위와 같이 갈고
리 모양으로 몹시 이지러진 달.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이 지닌 특성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3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우리’의 희망을 상징하고, ㉡은 ‘우리’의 생명력을 일깨우고 있다.
- ② ㉠은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고, ㉡은 ‘우리’의 자기 연민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은 ‘우리’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와 ㉡은 모두 ‘우리’에게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와 ㉡은 모두 세상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용악의 「하나씩의 별」과 신경림의 「갈구렁달」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나씩의 별」은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과 고초를 겪은 유이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갈구렁달」은 시골과 도시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한 뿌리 뽑힌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편, 전자에서의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기는 하지만 해방 정국의 황폐화된 현실로 인해 귀속을 실현할 수 없는 공간이고, 후자에서의 고향은 산업화로 폐쇄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공간이다.

- ① (가)의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와 (나)의 ‘별판에 버려진’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상황을 드러낸다.
- ② (가)의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이들과 동질감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가)의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은 해방 정국의 황폐화된 현실을 드러낸다.
- ④ (나)의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는 화자가 고향과 도시 그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 ⑤ (나)의 ‘저녁놀을 바라볼 시간’이나 ‘갈궂질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은 화자에게 고향이 여전히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임을 드러낸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수(居水)에 이러커든 거산(居山)이라 우연(偶然)히라
산방(山房)의 추만(秋晩)커늘 유희(幽懷)를 둘 디 업서
운길산(雲吉山) 돌길히 막디 집고 쉬여 올라
임의소요(任意逍遙)*히며 원학(猿鶴)을 벗을 삼아
교송(喬松)을 비기여 사우(四隅)*로 도라 보니
천공(天工)이 공교(工巧)히야 뿔뿔쫄 쏘이느가
흰구름 말근 너는 편편(片片)이 썬여 나라
노푸락 나지락 봉봉곡곡(峯峯谷谷)이 면면(面面)에 버릇썬든
서리친 신남기 봄꽃도곤 불거시니

[B]

금수병풍(錦繡屏風)을 첩첩(疊疊)이 둘너는 듯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참람(僭濫)*히야 보이느다
힘 세이 다토면 내 분에 올라마는
금(禁)히리 업술시 나도 두고 즐기노라

[C]

히물며 남산(南山) 느린 굻히 오곡(五穀)을 가초 심거
먹고 못 남아도 굻지나 아니히면
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시 엇더히노

[D]

채산조수(採山釣水)히니 수륙품(水陸品)도 잠깐 굻다*
감지봉양(甘旨奉養)*을 족(足)다사 흥가마는
오조함정(烏鳥含情)*을 뱉고야 말녇노라
사정(私情)이 이러히야 아직 물러나와신들

[E]

망극(罔極)히 성은(聖恩)을 어니 각(刻)에 이질넉고
견마미성(犬馬微誠)*은 백수(白首)에야 더욱 갑다
시시(時時)로 머리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니
늬 모르는 눈물이 두 사미에 다 젖느다

— 박인로, 「사제곡(莎堤曲)」—

- * 임의소요(任意逍遙): 마음대로 거닐며 바람을 쏘임.
- * 사우(四隅): 사방.
- * 참람(僭濫): 제 분수를 넘어 방자스러움.
- * 굻다: 갖추다.
- * 감지봉양(甘旨奉養): 맛나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함.
- * 오조함정(烏鳥含情): 까마귀가 먹은 마음.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 * 견마미성(犬馬微誠): 개와 말이 충성스레 사람을 섬기듯이 신하가 임금님을 섬기려는 작은 정성.

(나)

농암(壟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 로다
인사(人事)이 변(變)흔들 산천(山川)이썬 가실가
암전(巖前)에 모수(某水) 모구(某丘)*이 어제 본 듯 히예라
— 이현보, 「농암가(壟巖歌)」—

- * 유명(猶明): 오히려 밝아짐.
- * 모수(某水) 모구(某丘): 아무개 물과 아무개 언덕.

(다)

그러다가 금년 가을에 상인(上人)*이 산에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붙들어 두었는데, 그
때 상인이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보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초당을 상죽(霜竹)이라고 이름하고는 육우(六又)
김비판(金祕判)에게 청하여 큰 글자를 써서 현판으로 걸었다.
앞으로 상죽에 대한 시가(詩歌)를 천신(薦紳)들 사이에서 구
하려고 하니, 그대가 기문(記文)을 써주면 좋겠다.”

내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긴 하였지만, 나를 초목에 비유한
다면 저력(樗櫟)이나 포류(蒲柳)일 따름이니, 어떻게 감히 우리
상인의 초당에 기문을 쓸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상인
이 일단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았고 보면, 내가 또 어떻게 들은
것을 가지고 고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대저 대나무도 하나의 식물이다.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면
급격하게 변해서 가지가 꺾여 부러지고 낙엽 저 떨어져서 더 이상
생기가 없어지고 만다.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고 있는 식물 모두가
이러한데도 오직 대나무만은 가지도 여전하고 잎도 여전한 가운데
홀로 우뚝 서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운치
있는 사람들과 절개 있는 선비들 거의 대부분이 대나무를 사랑하
였으며, 심지어는 차군(此君)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
였던 것이다.

아, 사람의 속성을 살펴보건대, 눈으로 색(色)을 취하고 코로 냄
새를 취하고 귀로 소리를 취하고 입으로 맛을 취하고 팔과 다리로
편안함을 취하는 과정에서, 저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들이 어찌 식
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이에 대해 피할 줄 아는 자가 드물기만 하다.

상인은 불자(佛者)이다. 따라서 소위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일념(一念)이 동요된 적이 없었
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초당을 상죽(霜竹)이라고 명명하
였고 보면, 이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일 뿐만이 아니
요, 대개는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 이송인, 「상죽헌기(霜竹軒記)」—

* 상인(上人): 지혜와 덕을 갖추어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고승.

34.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를 대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주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이 드러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
이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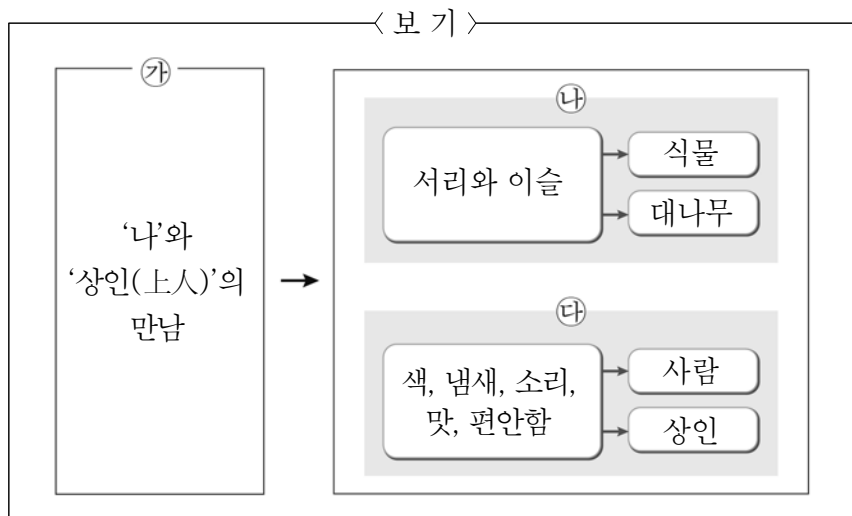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제곡」은 박인로가 이덕형을 화자로 하여 그가 향촌인
‘사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작품화한 것이다. 박인로의 시가에
서 강호는 향촌으로 돌아온 사족(士族)이 은거하는 공간인 동시
에, 그들이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또한 성리학적
유자(儒者)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충과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다.

- ① [A]는 화자가 ‘사제’를 유자적 자세를 다짐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B]는 화자가 ‘사제’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C]는 화자가 ‘사제’에서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D]는 화자가 ‘사제’에서 부모를 봉양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E]는 화자가 ‘사제’에서도 충을 실천하고자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7.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에서 ‘나’를 대하는 ‘상인’의 태도를 생각해 ‘상인’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 ② ‘나’는 ㉡의 ‘대나무’가 ‘서리와 이슬’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나’는 ㉢의 ‘상인’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에게 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의 ‘대나무’가 ㉢의 ‘상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의 ‘서리’가 ‘식물’을 해치는 것보다 ㉢의 ‘사람’이 ‘편안함’을 취하면서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친으로부터 꽤 기쁨이 잡힌 ㉠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못해 사업가가 되었다. 뿐 새로 사업에 손을 대는 젊은이다운 의욕도 야망도 없었다. 나는 미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자수성가한 부친은 진작부터 나에게 돈을 벌려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부려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에 대해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그 일을 내가 직접 행해야 한다면 당해서는 진전공공했다. 사업은 날로 부진해갔다.

직물계도 차차 틀이 잡혀 큰 자본이 투입되어 대기업화하고 더군다나 화학섬유의 대량생산으로 면직물계는 사양의 길을 걸을 때라 나는 쇠망의 흐름을 저항은커녕 얼씨구 하며 탔던 것이다. 드디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공장을 정리했다. 부친이 일

생 동안 모은 돈을 불과 일 년 만에 날리고도 나는 자책보다는 우선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켜가며 사람 부리는 그 지겨운 일로부터 놓여났다는 해방감이 앞섰다. 그것은 부친으로부터 놓여났다는 해방감일 수도 있었다. 나는 공장을 정리한 얼마간의 돈으로 부친의 망령이라도 감히 간섭할 수 없을 것 같은, 될 수 있는 대로 생전의 부친과 생소한 사업에 이것저것 손을 대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전축 조립 공장, 석유난로 공장, 다시 또 규모를 좁혀 노트 공장, 단추 공장, 형광등 기구 공장 이렇게 잡다하게 업종을 바꿔가며 영락없이 적지 않은 손해만 보고 물러났다.

물러났다기보다는 마치 차멀미에 못 견딘 나머지 달리는 차에서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는 돌발사고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던 일에 멀미를 내고 무작정 무위와 고독 속으로 뛰어내렸던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은,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다. 세리와와 간교한 ‘쇼부’, 관료에의 아침,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송사리의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파렴치한 축수, 동업자간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경쟁, 이런 것들이 ㉡ 어느 순간 심한 멀미,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느글느글한 멀미가 되어 나에게 작용했다.

[중략 줄거리] ‘나’는 집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동네로 이사하고, 그 집이 있는 벼랑 밑의 삼층집에 살고 있는 김복록은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수년 간 받아 챙긴다. 김복록은 새로 이사 온 나를 호출해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또 요구한다.

“뭐? 누구 맘대로 안 사. 그럼 내 땅을 내놔야지. 남의 땅을 공거로 먹을 배짱이야. 날도둑놈 같으니라구.”

“말씀 삼가십시오. 누가 댁의 땅을 먹는겠습니까? 가져가세요. 아마 축대를 조금 내 쌓았다 이 말인가본데, 축대가 저렇게 기니까 열 평이라야 길게 열 평일 테니 한 뼉뼉 되겠군요.”

“뭐? 뭐라고, 누구 맘대로 하, 한 뼉이라고……”

“그야 우리 맘대로야 안 돼요. 가져가시더라도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고 가져가셔야죠.”

“뭐 측량? 다, 당신이 측량을 하겠다고? 흥, 측량은 돈 안 드는 줄 알고.”

“왜 제가 합니까? 땅이 필요한 건 당신인데. 백만원이 생기는 것도 당신이고.”

“뭐? 내가 언제 뭐 필요했어? 뭐?”

“원, 이런 어른 봤나?”

아이들이 안 보인다. 아주 안 보인다.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나는 일어나면서 김복록을 뚫어져라 응시한다. 별안간 아물아물하던 게 명료해진다. 바로 그다! 순간적으로 나는 김복록을, 오랜 세월 내가 하려는 일 뒤에 숨어서 나에게 그 고약한 멀미를 일으키게 한 정그러운 괴물의 정체로서 파악한다.

저런 모습이었구나.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 탐욕이니 비열이니 파렴치니 하는 추상명사가 빼와 살을 갖추면 바로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나는 진저리를 쳤다.

나는 ㉢ 그날부터 다시 장난감 만들기에 골몰할 수 있었다. 나는 멀미로써 나를 속박하던 괴물의 정체를 알아낸 것에 신선한 기쁨을 느꼈다. 또 그 괴물의 본질이 알고 보니 보잘것없이 허약하다는 게 내게 용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아직 다시는 멀미를 앓겠다는 자신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방법보다는, 그

와 맞서 그 본질을 알아냄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방법에 접근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각**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이거나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견한 일이었다.

드디어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장난감 모형이 완성돼 철을 하려고 컴프레서를 돌렸다. 낡은 가내공업용 컴프레서는 몹시 털털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끄지** 못해. 내가 이 동네 다 샀어? 안 **끄면** 고발소에 **찌를** 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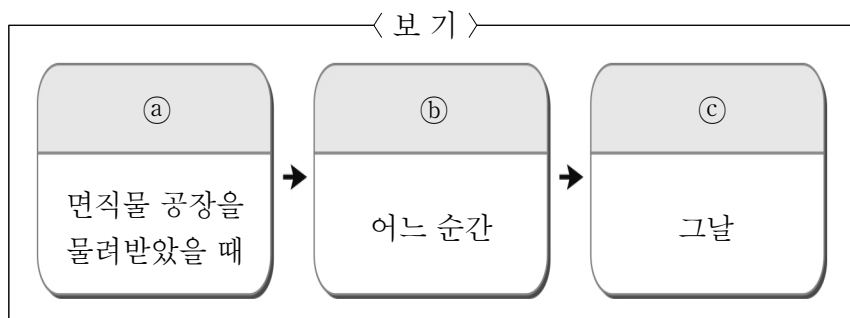
김복록네 북창이 열리더니 그 추한 얼굴을 길게 내밀고 고래고래 악을 켜다. 나는 다시 느글느글 멀미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계에서 나는 지독한 소음에 대해선 대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김복록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예절이었다.

- 박완서,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서술하여 사건에 대해 중립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나’는 면직물 공장을 경영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다.
- ② ㉠에서 ‘나’는 다른 사업보다 부친이 일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 ③ ㉡에서 ‘나’는 사업 과정에서 겪는 부조리한 일에 멀미를 느꼈다.
- ④ ㉢에서 ‘나’는 ‘김복록’에게서 그동안 느낀 멀미의 실체를 보았다.
- ⑤ ㉢에서 ‘나’는 예전에 골몰했던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소설은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를 배경으로, 물질 만능주의 풍조 속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속물적 세태에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인물이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직물계’에 ‘큰 자본이 투입’되고 ‘대기업화’되었다는 것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군.
- ②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작은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를 느낄 수 있군.
- ③ ‘김복록’에게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속물적 세태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가 ‘김복록’을 ‘징그러운 괴물’, ‘탐욕’, ‘비열’, ‘파렴치’ 등으로 파악한 데에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엿볼 수 있군.
- ⑤ ‘멀미’를 피하지 않고 ‘그와 맞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에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죄를 얻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김원은 좌승상 김규와 윤희 부인 사이에 수박 모양으로 태어난다. 세월이 지나 허물을 벗은 김원은 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러 지하국으로 내려가 공주를 구해낸다.

동천을 다 불태우고 공주와 모든 여자들을 데리고 동우리에 나아가 가로되,

“세 분 공주는 동우리에 오르소서. 황상의 기다리심이 일각이 삼추 같사오니 모름지기 수이 오르시고 동우리를 내려 보내시면 모든 여자들을 내보내고 신은 나중에 올라가겠습니다.”

공주가 가로되,

“원수가 큰 공을 세워 잔명을 보전하였으니 먼저 올라가시면 우리는 뒤쫓아 올라가겠습니다.”

원수가 머리를 숙이고 사양하기를,

“신은 신자(臣者)라. 공이 무엇이길래 어찌 감히 먼저 올라가리이까? 낭낭은 바빠 오르소서.”

공주가 말하기를,

“먼저 오르소서 한 뜻은 뒷근심이 있을까 함이었사오니, 그러하면 장군과 함께 가사이다.”

원수가 크게 놀라고 듣지 않으니 하릴없이 모든 여자를 분배하고 방울을 일시에 흔드니, ㉠ 지혈을 지키는 군사가 방울 소리를 듣고 일시에 줄을 당기어 지혈 밖으로 올렸다. 공주를 막차(幕次)에 안돈하게 하고, 다시 동우리를 내리우는데 부장 강문추가 마음에 생각하되,

‘이제 김원이 지혈에 들어가 큰 공을 이루고 공주를 모셔 내었으니 경사에 돌아가면 일등 공신이 될 것이오 나는 아뢰 공이 없으니 차라리 원을 지혈에서 나오지 못하여 죽게 하고 저의 공을 빼앗음만 같지 못하다.’

하고, 심복 군사를 불러 여차여차 하라 약속을 한 후 동우리를 내리우다가 군사가 그 줄을 놓아 버렸다.

강문추가 놀라는 체 하며 공주께 아뢰기를,
 “큰 변이 났나이다. 지혈에 동우리를 조심하여 내리옵더니 그 속에서 찬 바람이 일어나며 사슬을 잡아 당기니, 군사가 견디지 못하여 놓아 버렸나이다.”
 라고 하였다.
 공주와 모든 여자들이 모두 놀라며 간담이 떨어져 통곡하다가 막내 공주가 첫 공주께 고하기를,
 “일이 여차하니 빨리 서울에 올라가 황상께 이 연유를 고하여 다시 동우리를 준비하여 김 원수를 구하여냄이 옳을까 하나이다.”
 두 공주가 대답하기를,
 “김원이 그때까지 살아 있을 줄을 어찌 알리오?”
 눈물을 흘리며 금당에 올라 모든 여자를 거느리고 황성으로 행하니, 강문추가 군사에게 분부하여 흠과 돌을 운반하여 지혈을 메웠다.
 이때 원수가 세 공주를 먼저 보내고 다시 동우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동우리가 떨어지며 흠과 돌이 무수히 떨어졌다.

(중략)

차설. 공주의 일행이 여러 날만에 ㉞ 황성에 도달하니, 성내의 백성과 딸을 잃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사방에서 모여드니 성중이 분분하여 반기며 우는 소리가 많았다. 세 공주가 바로 대궐에 들어가매 상과 황후가 공주의 손을 잡고 반기며 울으시니 황제의 눈물 두 줄기가 흐르며, 육궁 비빈과 삼천 궁녀들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도리어 상을 당한 집 같았다.
 상과 황후가 마음을 진정하고 공주에게 지난 고생을 물으시니, 공주가 눈물을 거두고 당초 아귀에게 잡혀갈 때 산에서 소년을 만났던 일이며, 지혈에 들어가 시녀로 부림당하던 일이며, 시냇가에서 피묻은 수건을 빨다가 김 원수를 만났던 일과 김원이 홍집선 부치던 일이며, 동우리를 타고 올라온 후 군사가 사슬을 놓아 김원이 나오지 못한 연유를 다 아뢰었다. 상이 크게 놀라 탄식하며 즉시 강문추와 정양을 불러
 “빨리 지혈에 나아가 김원을 구해내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지를 받자와 지혈에 나아가 보니, 지혈이 벌써 메이었고 김원의 종적을 알 길이 없었다.
 도로 돌아와 이 사연을 아뢰니, 상이 더욱 놀라며 참혹히 여겨 문무 백관을 모아 의논하셨다. 우승상 송방이 아뢰기를,
 “신이 생각하오니 김원의 공을 꺼려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어 지혈을 메운가 싶사오니, 강문추와 사슬을 놓쳤던 군사를 국문하시면 진위를 아올까 하나이다.”
 상이 옳게 여겨 친국을 배설하고 강문추와 군사를 엄형으로 물으시니 위엄이 뇌성과 같았다. 어찌 감히 속이리오? 매를 한 대 때리기도 전에 군사가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백하니 강문추가 또한 하릴없어 죄를 자복(自服)하였다. 상이 통분하여 강문추와 군사 등을 다 능지처참하셨다.
 그리고 승상 김규를 입시하라 하시어 위로하시기를,
 “경의 아들이 나라를 위하여 사지(死地)에 들어가 공주를 구하였거늘 짐은 명민하지 못하여 원수를 보지 못하고 그 종적을 모르니 경을 보기에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승상은 간장이 녹는 듯하나 임금과 신하의 사이로서 자기 심

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사와 갚사울 바를 만에 하나도 얻지 못하였삽더니, 이제 미천한 자식이 황명으로 나랏일에 죽사오니 도리어 영광이옵니다. 성교(聖敎)가 이와 갚사오니 황공하옵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상이 재삼 위로하고 내전에 들어가 이 사연을 전하시니, 황후와 세 공주가 강문추를 천만 통한하며 원수를 차탄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42. ㉠과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원수’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공주’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 ② ㉠에서 나온 ‘세 공주’는 함께 잡혔던 여인들을 데리고 ㉡로 이동하였다.
- ③ ㉠에서 ‘원수’는 ‘황상’이 공주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 ④ ㉡에서 ‘상’은 ‘김원’의 종적을 알고 ‘황후’와 ‘세 공주’를 위로하고 있다.
- ⑤ ㉡에서 ‘송방’은 ‘김원’을 시기하는 사람이 그를 해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원전」과 같은 괴물 퇴치담은 주인공이 괴물을 퇴치하고 괴물에게 납치된 여인을 구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하 세계로 들어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적인 과업에 성공한 주인공은 동료나 부하의 배반으로 현실 세계에 바로 귀환하지 못하나, 결국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귀환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는 유교적 이념과 권선징악적 의식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 ① ‘강문추’가 군사를 시켜 지혈을 메운 것에서 주인공이 부하의 배반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상’이 ‘강문추’를 엄형으로 문초하고 능지처참한 것에서 권선징악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수’가 지혈에 마지막까지 남아 여자들을 밖으로 보낸 것에서 주인공이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막내 공주’가 ‘첫 공주’께 서울에 가서 황상께 연유를 말하자고 한 것에서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귀환했음을 알 수 있군.
- ⑤ ‘김규’가 ‘상’에게 자식을 나랏일에 잃었으나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한 것에서 유교적 이념이 작품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 룡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호신술을 더- 배워 보려고 하는데요. 더욱이 요사이는 파업단의 기세가 점점 험악해져서 별별 소문이 다 들려오니까. 아조 얼른 배워 두지를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그려.

체육가 아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지독합니까?

상 룡 글썽요, 암만해두 등 뒤에 띤 것이 있는 모양 같은데요. 더욱이 이번에 기숙사도 개량해주마- 월급도 조금만 내리마- 밤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시키마- 하고 여간 양보를 한 것이 아닌데요.

변호사 허- 참 공연히 과격들만 해서 걱정입니다.

의 사 그만큼 이쪽에서 양보를 했으면 그만이지 아니예요.

상 룡 노동자가 무슨 큰 뺏지인지 여간들 하는 게 아닙니까그려. 어쨌든 이번에는 공장이 망하는 한이 있대도 이 이상 더 양보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일 동 그럼요 지당한 말씀이지요.

상 룡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그것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는데요.

변호사 그거야 법이 있는 다음에야 걱정하실 게 뭐 있습니까.

상 룡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그려. 그리고 윤선생 오늘은 우리집원 가족이 단 한 가지씩이라두 배울까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안에서 봉변을 할 뻔 했어요.

정 수 아이구 참 그때 나도 혼이 났는걸요. 그저 고것들이 앙큼하게 방물장수 모양하고 들어와서는 그저 막 지랄을 치는구려.

의 사 저- 펍 놀라셨겠습니까그려.

상 룡 자 그까진 이야긴 이제 그만두고 우리 시작해 보시지요.

체육가 그러시지요.

정 수 여보 우리 같은 늙은이두 되겠수.

체육가 글썽요, 아주 쉬운 것 몇 가지는 되시겠지요.

정 수 오 글썽, 암만해두 좀 거북한 것 같은데.

상 룡 그런데- 저- 여러분두 아시겠지만 워낙 시절이 험악해서 이따위 고생을 하는구료.

체육가 ㉠그렇지요. 더군다나 영감은 서울 안에만 해두 공장을 셋이나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이 파업 중이고 하니까.

상 룡 허- 세상은 참 고약해-. 없는 놈일수록 다수긋하고 잘 생각들은 못하고 그저 멀쩡하게 서로 똑같이 노나먹자는 수작만 한담.

(중략)

춘 보 (창을 활짝 열어 놓는다.)

상 룡 아서 꼭 닫어-. 이놈아- 틈으로만 내다 봐-.

춘 보 네-. (무엇이 생각이 난 듯이) 네- 네- 네- 인제 알었습니다. 파업단이 쳐-들어 옵니까?

상 룡 가만 있어 이놈아-.

춘 보 네-. 그런데 무슨 걱정이세요. 이렇게 호신술만 쓰시면-.

상 룡 (발을 구르며) 예구 이놈아 듣기 싫어, 자- 전화-. (전화를 한다.) 네 영감이슈- 뭐요, 지금 원통 야단입니다. 얼른 해산을 시켜주슈. 네, 여러 군데 응원까지 청을 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춘 보 예구 영감 저것 보세요-. 경관이 산더미같이 몰려옵니다.

상 룡 응, 정말, 그럼 살았다.

춘 보 ㉡예구 영감 계집애들 한 사내들 한 500명이나 옵니다. 예구 째이 났습니다.

멀리 떠드는 소리. 악쓰고 노래하는 소리.

하인A (달음박질 들어오며) 어느 틈엔지 와서 대문을 뚫들겁니다.

상 룡 어서 나가 지켜.

하인A 퇴장.
둘 한 개가 날아와서 창을 깨친다.

춘 보 에엑크- 예구- 영감 큰일났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인B ㉢(급히 들어오며) 마님께서 병원에서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오시다가 그만 길에서 여공에게 붙들리셨답니다.

상 룡 뭐! 이놈아, 어서 나가 있어.

춘 보 아이구 영감, 대문을 깨뜨립니다.

깨지는 소리. 노랫소리.

- 송영, 「호신술」 -

44. ㉠ ~ ㉢ 중 <보기>의 ㉠, ㉡의 사례로 알맞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 보 기 >

극에서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 ‘관찰자 보도’는 무대 위와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무대 밖 사건을 무대 위의 한 배우가 관찰하며,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배우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 ‘보고자 보도’는 무대 밖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무대 밖의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무대 위 배우에게 현재 시점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5. 윗글을 연극으로 연출하고자 할 때, 연출자의 지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보’와 ‘상룡’ 역을 맡은 배우는 대화와 행동에서 상하 관계가 드러나게 연기해 주세요.
- ② 음향 담당은 파업단의 집단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음향 효과로 들려주세요.
- ③ 조명 담당은 ‘상룡’, ‘춘보’, ‘하인B’와의 대화 장면에서는 ‘상룡’이 중심인물이므로 ‘상룡’만 보이도록 해 주세요.
- ④ 무대 장치 담당은 배우가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연기할 수 있도록 무대 위에 가벽을 세우고 창문을 만들어 주세요.
- ⑤ 소품 담당은 ‘상룡’이 무대 밖 인물과 통화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연기할 수 있게 전화기를 소품으로 준비해 주세요.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